



###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교육기부 협약 체결



미래사회 산업역군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산업 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부 협약을 지난 10월 30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진규 회장과 나근형 교육감 등 양 기관 대표자들과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신진규 회장은 “향구적인 선진 안전문화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의 안전의식부터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익히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지회 이전 개소, 최고의 안전관리서비스 제공 다짐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는 최근 ‘울산 북구 명촌21길 49’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지난 11월 16일 이전 현판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협회 주요 임직원들과 최성준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을 비롯해 지역 안전유관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신진규 협회장은 “산업재해는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나아가 국가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울산지회는 최선의 안전관리서비스를 펼쳐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산재감소를 위한 지역 구성원 모두의 열망과 노력을 결집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지회 성기철 지회장은 “울산 지역에 보다 더 나은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제1의 산업도시인 울산을 제1의 안전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2012년도 신규채용자 교육’ 실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11월 8~9일 이틀간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입사한 21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 신규 채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효과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시키기 위해 마련

됐다. ‘협회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전제성 관리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협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조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고취됐을 것”이며 “협회의 안전관리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하루빨리 습득해 앞으로 산업 안전 분야의 소중한 인재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구북부지회, 선진 안전문화 벤치마킹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북부지회(지회장 김용규)는 지난 11월 9일 관내 안전관계자 및 고용노동부대구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들과 함께 ‘선진안전기법 벤치마킹’을 위해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대우조선해양(DSME)을 찾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HSE팀으로부터 안전보건추진기법에 대한 실무사례를 소개받고, 안전체험 훈련장에서 직접 체험훈련을 받았다. 대구북부지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도 함께 실시됐다’며 “관내 안전관계자들이 선진안전관리 문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남서부지회 통영출장소, 이전 개소식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박정규 지회장) 통영출장소(출장소장 이상욱)의 이전 개소식이 지난 11월 7일 신진규 회장과 강성천 고문, 김철석 경영지원본부장 등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진규 회장은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과 결의를 가지고, 통영지역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출장소는 사무실(경남 통영시 무전동 1055-13)의 이전 개소를 계기로 앞으로 주력산업인 조선업종에 대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전북교육청, 안전한 면학분위기 정착 협력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지난 10월 26일 전북교육청과 학교 안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회 전재성 관리이사, 전북교육청 홍진석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안전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술 지원 △특성화고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재성 관리이사는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안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회가 가진 노하우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지회, 경상공업고등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지회(지회장 장동주)는 지난 11월 5일 경상공업고등학교(교장 김익원)와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내용으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산학협력은 협회와 경상공업고등학교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동주 대구지회장은 “경상공업고등학교의 공업교육 이념과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안전교육 이념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어, 향후 지역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장기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우수 안전관리자에 해외 산업시찰 지원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는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우수회원 등을 초청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및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단지를 시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산업시찰에 드는 비용은 협회가 전액 지원했다. 이번 연수에서 시찰단은 베트남 옌퐁 산업관리공단 등 양 국가 내 주요 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봤다. 이들 산업에는 오리온,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글로벌 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